

사무엘하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삼하 1 장 1-27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까지 도망 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은 즉시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 명령한 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크게 애통해하며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1.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망친 한 아말렉 사람은 다윗을 찾아 왔습니다. (1-10 절)

1)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 절)

- ✧ 이는 사무엘상과 하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구절임. -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음)
- ✧ 그런데 시기적으로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곧 그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음.

2) 이때 전투에서 살아 도망친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주목하면....

- ✧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을 덮어 쓰고 있었다는 것!
 - 이것은 당시 근동 지방사람들이 극한의 슬픔을 표시하던 대표적인 표현 방법임.
 - 그 외에도 금식, 굶은 배뱃을 입음, 허리에 굶은 배를 땀, 재와 티끌을 뒤집어 씌, etc.
- ✧ 그런데 학자들은 그가 지금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온 것은 그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짓 행동일 것이라 추측!

3) 그럼 이 아말렉 사람의 행동을 주목해 보자. (2-3 절)

- ①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함 (2 절)
 - 다윗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와 복종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
 - 그런데 그는 어제까지는 사울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살았을 것..
- ② 자신은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고함 (3 절)
 - 학자들은 아마도 그는 사울에게 고용되었던 아말렉 출신의 용병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 (9 절: 그의 증언대로 사울의 말을 인용하면, ‘그의 목숨은 사울에게 있었음’)
 - 그래서 전투가 블레셋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는 급히 도망쳤을 것이라 추측.

4)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묻는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보고를 하였습니다. (4-10 절)

- ✧ 우선 그가 다윗에게 한 보고는 사무엘상 31 장에 기록된 사울의 최후와 다름.

■ 그의 보고가 거짓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 ① 6 절, ‘내가 우연히...올라 보니’ 사울이 있었다?
 - 당시 전투에서 패하고 추격군들에 쫓기던 사울 옆에 우연히 있게 되었다? 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함. 더군다나 그는 사울이 죽자 바로 다윗을 찾아올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음..
- ② 6 절,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 중이었다?
 - 병거와 기병은 산에서 쓰는 무기가 아님!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보아 산으로 올라간 것임!.
 - 그래서 블레셋은 사울을 추격하기 위해 병거대신 ‘활쏘는 자들’을 동원! (삼상 31:3)
- ③ 7, 9 절, ‘사울이 자신을 보고 불러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했다?
 - 우선 사울 옆에는 마지막까지 사울의 병기든 자(호위병)가 있었고, 사울이 자살하는 것을 본 후에 그도 마지막에 자살하였음.
- ④ 더군다나 사울이 그가 누군지 물어볼 때, ‘아말렉 사람’ 이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 사울이 자살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였다는 것!
- ⑤ 10 절,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 전쟁에 참여하는 사울이 왕관을 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아마도 사울의 투구 위에 돌린 왕권을 상징하던 금띠였을 것이고 팔찌도 아마 일종의 장신구였을 것임.

이상으로 볼 때,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철저한 기회주의자이자 아부근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나 아부를 통해 자기 출세를 꾀하기 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항상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접한 다윗은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11-16 절)

1)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11-12 절)

■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하였을까?

12 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 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죽었기 때문. -> 14 절,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자’
- ②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음..
- ③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죽음!

곧 이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한 개인의 죽음만을 보며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슬퍼했고, 나아가 그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된 것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것!

우리도 이웃의 환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아말렉 사람을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3-15 절)

■ 참고: 신분을 묻는 다윗에게 그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 이라 답함!

-> 여기서 ‘외국인’이란 말의 원어는 ‘게르’ 라는 말.

-> 이는 이스라엘에 임시로 체류하는 타국인을 말하는 ‘노크리’ 라는 말과 달리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던 이방인들을 의미.

-> 이들은 유대 후기에는 완전한 이스라엘 시민들처럼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되었음.

■ 주목 ->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에게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책망하였다는 것!

-> 곧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 동화되어 살면서 익히 율법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사울을 죽였냐고 따졌다는 것!

-> 그 후 부하를 통해 그를 죽이라 명령하며, ‘너의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음!

이렇게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그가 정치적 차원에서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세를 목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고,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의로 그를 심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죽음은 그의 책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3.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저들의 업적을 기억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17-27 절)

1) 다윗은 이 노래를 ‘활 노래’ 라 이름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17-18 절)

☆ ‘활 노래’ -> 추측 : 아마 사울의 죽음이 활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

☆ ‘야살의 책’ -> '의로운 자의 책' 이란 말로, 이 책은 여호수아 10 장 13 절에도 언급됨.

- 그러므로 최소한 이 책이 여호수아와 사무엘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고, 이 책의 기원이나 그 정확한 내용도 알 수 없음.

-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서사시를 수록했던 고대 문서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

2)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 이라 묘사하며 조가를 기록하였다는 것! (19 절)

✧ 곧 비록 사울의 인생에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긍정적인 부분들만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 은혜들을 기억하며 노래하였다는 것!

3)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블레셋 지경에 전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 절)

✧ 사실 이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블레셋 전역에 전파되었음..

✧ 그러나 다윗은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 사실을 전파시키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

4) 마치 길보아 산을 저주라도 하듯 ‘제물 낼 밭도 없다’ 고 표현함으로써 그 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 애통해 하였음. (21 절)

5)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잊지 않고 노래하였습니다. (22 절)

✧ 과거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기억시킴.

6)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음을 노래하였습니다. (23 절)

✧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한 요나단의 효심을 기억시킴.

7)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였음을 기억하며 노래하였습니다. (24 절)

✧ 사울의 통치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정과 번영을 기억시킴.

8) 끝으로 다윗은 다시금 요나단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 노래하였습니다. (26-27 절)

✧ 자신에게 심히 아름다움이였다~ : 매우 친절했다. 기쁨이였다, 은혜였다는 고백..

✧ 자신을 사랑함이 기이하였다~ : 매우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 는 뜻.

✧ 여인의 사랑보다 대단하였다~ : 요나단의 우정을 남녀의 사랑보다 더한 최상급으로 표현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